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굳게 닫힌 새 무덤

(마 27:57-66)

The New Tomb that Is Securely Shut

(Matt. 27:57-66)

죽음은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시신을 안치하려고 할 때는 해가 저물었을 때였습니다(57절). 바로 이때 불현듯 한 사람이 나타나 당돌하게도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death means that what we cannot expect any more. It is the last of all the things. After Jesus died, it was getting too dark to bury a body (v. 57). Just then, a man appeared suddenly and boldly asked Pilate for Jesus' body. Who was he?

1. The man who confessed his faith publicly at the difficult and dangerous moment

Joseph from Arimathea was rich and a disciple of Jesus, but he himself kept secret because he feared the Jews (John 19:38). Such a man, Joseph did not hide any more that he was a disciple of Jesus Christ but appeared in order to take Jesus' body and hold a funeral for Jesus' body. The bible does not explain why he did this. Perhaps, by looking at Jesus' death on the cross, he had courage to confess his faith in public.

1. 가장 어렵고 위험한 순간에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큰 부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겼던 사람입니다(요 19:38). 그런 요셉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가 왜 이같이 마음이 바뀌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거룩한 변화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요 19:38-39).

Such his change gave the effect of holy change to the people around him (John 29:38-39).

2. 자신의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이었습니다(막 15:43). 예수의 사건에 잘못 개입되면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지위와 출세의 담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공의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순교자적 신앙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일터에서, 관계 가운데, 세상 한 복판에서 거룩한 기독교적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 현세의 것보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막 15:43). 그는 장례나 잘 치러 드리자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궤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사 53:9).

요셉은 부자답게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아무도 쓰지 않았던 새 무덤을 준비하여 그 곳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힌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기쁨으로 영원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장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굳게 닫힌 무덤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 일에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아리마대 요셉처럼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 He who did not fear his damage but confessed his faith

Joseph of Arimathea was a prominent member of the Council (Mark 15:43). If he had intervened in the Jesus incident by mistake, he would have lost his position, and his successful career would not only fall down but also his membership of the Council would be expelled. Nevertheless, he had a hard time by all of the dangers and appeared before Jesus' death. This must be really faithful action of Martyr.

Just like Joseph from Arimathea, we also should become Christians to influence the holy Christianity at work, in relation with people, and in the middle of the world.

3. The man who yearns eternity more than the pres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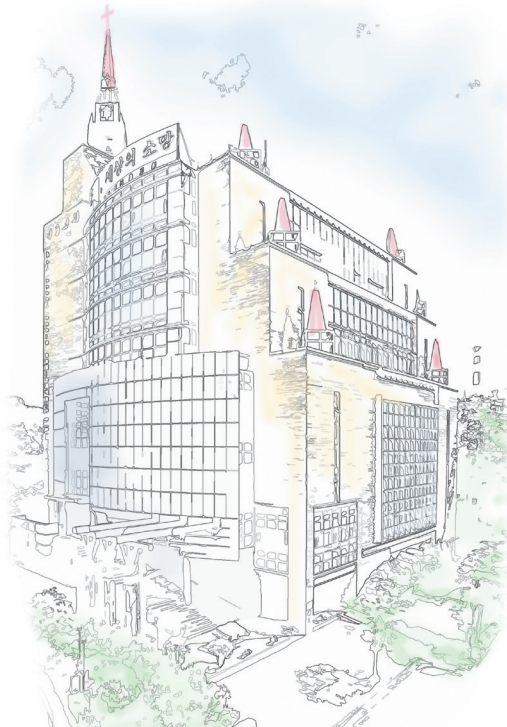
Joseph from Arimathea was not only prominent member of the Council but also waited the Kingdom of God (Mark 15:43). He did not intend to ask for taking Jesus' body in order to hold a funeral. “He was assigned a grave with the

wicked, and the rich with his death, though he had done no violence, nor was any deceit in his mouth” (Is 53:9).

Joseph, by behaving like the rich, wrapped Jesus' body in clean linen cloth and placed Jesus in the new tomb that was not used by anyone. This is the accomplishment of God's word.

My beloved Christians,

Now, the tomb that was shut securely will open and Jesus Christ will win the power of death and resurrect from the death. Joseph from Arimathea at the decisive moment was used by the kingdom of God with full of spirit. Just like Joseph from Arimathea,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take a victory with the faith of resurrectio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추석 되도록 어려운 성도와 장애인 관련기관에 구제금 전달

추석 연휴가 금주에 시작된다. 이번 연휴기간 동안 수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이 명절만 되면 항상 어려움에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제사의 문제일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번 추석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시간으로 삼아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친척에게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나 안 믿는 가족들의 양심과 전도를 위해 삼가고 기도하는 추석 연휴가 되도록 하자. 한편 우리 교회는 추석을 맞이하여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들(주몽재활원, 나자로의 집)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쳤다. 땀 흘려 수고하여 남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추석 구제는 보람된 일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니 감사할 뿐이다.

「LIFE 5 운동」 - 선물방문 진행중 VIP(전도대상자), 연인원 4,401명 작성

사명자대회 기간 중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을 구원의 행복으로 초대하기 위한 VIP(전도대상자) 작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일까지 누적 1,276명의 성도가 4,401명의 VIP를 작성하였다. 우리가 작성한 VIP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그동안 마음으로 작성하고 기도로 준비한 귀한 영혼들을 초대하기 위한 5,000명의 VIP, 1,000명의 방문자, 300명의 결신자를 품고 기도하기 위한 5·1·3운동에 VIP카드작성을 통하여 계속 동참 해주기를 바란다. 지난 주부터 'LIFE 5 운동'이 시작 되었다. 'LIFE 5 운동'은 관계중심전도가 핵심이며 불신자전도가 우선순위이다. 작성한 VIP 전도를 위해 지난 주 인사방문(9/20)에 이어 이번



주는 선물방문(9/27), 다음 주는 나눔방문(10/4), 소망방문(10/11), 초청방문(10/18) 등 단계별 전도 전략을 세워 5주간 VIP작성 5명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여 새생명축수에 1명 이상을 초대하도록 한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란다.

2016학년도 호산나대학 신입생 모집 원서교부 및 접수 : 9.19(토) ~ 10.23(금)

호산나대학에서는 신입생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1)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판정을 받은 자, 2)2016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3)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동등한 교육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고교 졸업자, 중 1)항과 2)항 또는 3)항에 동시에 해당되는 장애인이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9.19(토) ~ 10.23(금)이며 인

터넷 교부 및 접수는 www.hosannacollege.net, 우편 접수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505-10 호산나대학 입학관리팀 담당자앞 (우:12450)으로 하기 바란다. 시험일정은 10. 31(토) 10:00 이며 합격자 발표는 11. 6(금) 13:00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호산나대학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영동시찰회 개최

10월 1일(목) 오전 11시 청담교회

서울강남노회 영동시찰회가 10월 1일(목) 오전 11시 청담교회(강변만 목사, 542-1483)에서 열린다.

에바다부, 각종 대회에서 수상

지난 9월 10-11일 구미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제 10회 전국장애인 육상선수권대회에서 우리교회 에바다부 반재학 성도가 남자 400m와 800m에서 금메달 2개, 김하나 성도가 여자 400m와 800m에서 금메달 2개, 박진영 성도가 포환던지기, 창던지기, 원반던지기에서 금메달 3개, 채경완 성도가 남자 100m에서 금메달, 장지현 성도가 여자 200m에서 은메달, 높이뛰기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반재학, 김하나, 채경완, 장지현 성도는 오는 10월 3-11일 대만 타오위안에서 개최되는 2015 아시아·태평양 농아인대회에 한국농아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 또한 지난 9월 15-18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3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황혜진 성도가 전자출판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은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86)

(문 186) 사도 바울은 “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롬11:26)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답) 팔레스타인을 떠나 전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민족이 그러면서도 망하지 않은 것은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측면에서밖에 달리는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핍박과 흩어짐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은 것은 그들의 단결과 노력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말한 로마서 11:26은 이사야 59:20이하의 말씀과 27:9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유대인에 대한 민족적 약속을 성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이스라엘이 즉 민족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구약의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6:14-15, 32:36-40; 호세아 1:10, 2:21-23; 스가랴 12-14장등의 말씀들은 모두가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들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와 기독교에 대해 강하게 적대시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이들의 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한 말씀을 ‘새 이스라엘’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은 이스라엘은 분명히 문장의 내용상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언약하신 것에 신실하십니다. 성경에서 언약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에서는 언약이라는 말이 9:4과 11:27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니다. 후자의 것은 구약의 인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구약에 300번 이상 나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언약도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처음부터 은혜로 맺어진 것입니다. 저들의 수효가 많거나 타 민족보다 훌륭해서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것이 아니고 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인가에는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배역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회복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세상의 끝이 될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조차 약속을 지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조차 불확실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다음 주 계속)

제사와 우상숭배



“ 무덤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자 ”

조상숭배 제도는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12세기 중국의 주희가 만든 성리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거니와 전 세계적으로 조상을 숭배하는 민족은 아시아의 유교권 국가들과 아프리카의 몇몇 부족들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

우상숭배요,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의 유교 철학에서 온 외래문화의 유산이며, 철학적으로 보면 과거 저항적인 순환적 시간관에 기인한 것이므로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평민을 다스리기 위한 사회 정치적 산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처음엔 위대한 업적을 남긴 황제를 추념키 위해 만들었지만 나중엔 평민들도 자기 조상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 가문에서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조상숭배는 성경적으로 보면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고나 그것이 효도의 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조상의 무덤을 찾기도 하는 잔치집에 가기보다 초상집 가기를 즐겨하라는 성경 말씀대로 무덤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지혜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명자대회

7주간의 기도와 응답



최원석 집사 (사명자대회 기도분과장)

작년처럼 금년도 사명자대회의 캐치프레이즈는 “7주간의 기도와 응답”입니다. 50일간 각 교구, 다락방, 교회학교별, 개인별로 자율기도 신청서 작성을 통해 자율적으로 시간을 정해 기도하며, 또한 매일 2회씩 열심히 기도하는 다니엘기도와 각각의 VIP를 품고 다락방 공동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스테반화와 권사회 회원은 0시~오전5시 사이에 자원하여 기도함으로써 항존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예정이며, 교회학교 유년부이상은 교역자와 학생들이 토요일 한날을 정해 모여서 기도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도 항상 기도를 먼저 하셨듯이 사명자대회 전도운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300명 결신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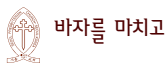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율기도신청서”에 작성하신 기도시간은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교회공동기도제목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열심히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금년도 공동기도제목을 알려드립니다. (1)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허락하소서 (2) 우리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셔서,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3) 우리 다음세대가 비전과 열정으로 믿음의 꽃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소서 (4) VIP초대 새생명 축제에 모든 다락방과 성도가 참여하여 1명 이상 열매 맺게 하소서

서 (5) 사명자대회/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모든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올해도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지키며 24시간 기도 하였던 권사님들



바자를 마치고

옥함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홍성주 장로 (바지위원장)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로 2015 사랑의 바자를 은혜가운데 마치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결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5 사랑의 바자의 특이 사항은 전교인이 옥함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기부운동에 참여한다는 목표로 8월 한 달간 사랑나눔 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분들이 기증과 기부로 참여하였으며 이웃과의 소통을 위해 동네어르신 및 공공기관 근무자를 초청하여 의료, 이미용 봉사 and 무료 식사대접을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교회가 돕는 농어촌100교회중 7개 교회를 초대하여 농특산물의 판로를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바자 양일간 집계된 봉사자 연인원이 1,014명을 넘었으며 집계되지 않은 숨은 봉사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모든 교구와 다락방이 참여하여 온 교회가 합력하는 바자가 되었습니다.

2015 사랑의 바자에서 모아진 바자기금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국제아파트와 청실아파트가 재건축중이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예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자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사랑이 충만하고 교제가 풍성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자 수익금은 불우이웃 및 탈북난민 돕기, 생명의 우물과기, 농어촌 교회 및 해외선교 지원에 전액 쓰여질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매

장에서 판매를 하며, 물질로 재능으로 기부하고, 주차와 매장 설비와 청소로 수고하신 봉사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로 지원을 하신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 교구에서 앞장 서 애쓰신 다락방장, 간사와 부교구장, 교구장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끝까지 솔선수범하여 준 차장, 기획, 판매관리, 재정, 시설, 차량부장들과 실행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며 지도로 수고하신 황광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바자에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자폐장애 승민이 그림값은 유희왕 카드 오백장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호산나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승민군의 사연과 그의 그림이 DAUM 뉴스펀딩에 소개 되었다. 이에 순례자에서 본문을 발췌해서 실는다. 자세한 내용과 서번트증후군 장애 청소년 후원은 <http://m.newsfund.media.daum.net/episode/1288>를 참고하기 바란다.

(편집부 주)

“승민이 그림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늘 새로운 캐릭터들을 그려내고 그 캐릭터마다 이름도 있고 특성도 있고 각기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재미 있어요. 뽀족하고 날카로운 각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어쩌면 승민이 마음속에 숨겨진 감정들이 아닌가 싶어요. 지난해는 수많은 선을 이용해 거미줄을 형상화하는 작업을 했는데 승민이도 즐겁게 작업을 했고 결과적으로 훌륭한 작품이 탄생했어요“

신진작가 발굴 및 전시기획 등을 진행하는 시스템 플래닛 오윤선대표는 승민이 그림의 특징은 독창성이라고 했다. 누구도 상상하기 힘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색의 선택이나 혼합에 있어서



◀ 동굴포레스트
▶ 무지개꽃
① 아크레딘의 거미줄
② 퓨처비전
③ 분매랑 전사
④ 오랑우탄

기존 그림에서는 보기 힘든 그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다. ...(중략)...

실제로 승민이 그림은 여러 점 판매가 되었는데 개인 뿐 아니라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에 소장되기로 했어요”

승민이는 자폐성 장애2급으로 현재 특수 대학1학년년에 재학 중인 청년이다. 몸은 다 큰 어른이 맞지만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자폐성장애의 특성상 여전히 대 여섯 살 어린아이에 가깝다.

승민이가 이렇게 자라는 동안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그의 앞에 있었을까. 모든 감각과 자극에 유난히 예민했던 아이, 그래서 엄마는 한때 승민이가 천재가 아닐까 기대도 했었다.

하지만 기대는 이내 걱정으로 바뀌었다. 대화도 눈 맞춤도 안 되는 아이. 연령에 따른 행동발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 외부와 단절한 채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지내는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저도 매일매일 절망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너무



그림이 여러점 판매되었지만 승민이는 그림을 돈을 주고 산다는 의미를 알지 못한다. 승민이에게 돈이란 좋아하는 음료수나 예쁜 문방구용품을 구입할 수 있고 좋아하는 유희왕 카드를 살 수 있는 것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림이 생활을 책임져주는 방편이 되지 못하겠지요. 하지만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나이 들 어간다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림을 판매 한 돈으로 필요한 그림재료를 넉넉히 살 수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재료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승민이는 돈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도 자기가 그린 그림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알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어서 승민이가 사고 싶어하는 유희왕 카드로 설명을 했어요. 승민이 그림을 팔면 유희왕카드 오백장을 살 수 있는 돈을 받는다고요. 승민이가 이해했을까요? 하하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중략)... 승민이를 키우며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날들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진 않으려고 해요. 승민이의 사랑도 결혼도 그리고 화가로서의 미래도 말이예요“



힘들어서 승민이와 같이 죽어버릴까 나쁜 생각도 했었지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잠깐있구요. 절대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어머니니까요. 엄마는 포기 할 수 없으니까요.

넘어지면 일어서고 또 넘어지면 일어서고..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워낙 부족한 것이 많아서 남들이 보기에는 뭐가 달라졌나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달라지고 있어요. 그게 희망인거죠“

...(중략)...

동 정

■ 이준윤 원로목사는 9월28일(월) 제3회 햇불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에서 설교한다. 10월3일(토) 사랑의 쌀 운동 기도회 및 IUBI사회 개회설교를 각각한다.

■ 주일식당봉사 : 베드로 선교회(9.27) 비울 선교회(10.4)

■ 금주의 식사 제공 : 교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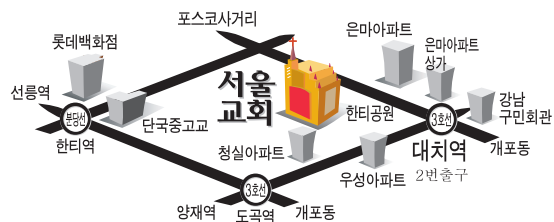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9월 24일부터 임주를 시작한 래미안대치펠리스 주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2. 10월 4일(주일)에 발대식을 갖는 2015년 사명자대회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전도로 영혼 구원의 대잔치가 되도록
3. 세계에 흩어져 복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께 복음의 열매 풍성하게 하시고 결실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